

高等教育 大衆化의 特徵과 課題

盧 宗 熙

(韓國教育開發院 責任研究員)

오늘날의 大衆高等教育은 자칫 低下되기 쉬운 高等教育의 質을 어떻게 維持 向上시킬 것이냐의 고민을 안고 있다. 學生人口의 증가와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多様化에 대한 壓力은 기존의 전통적 대학의 學問的 水準, 價値, 本質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I. 머리말

주지하듯이 6·25動亂 이후의 베이비 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왔고, 여기에 전통적으로 높은 教育熱과 60年代에 이룩한 生活水準의 向上 및 경제발전에 따른 高級人力의 需要 增大 등이 相乘作用을 하여 教育의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壓力要因이 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취해진 특기할 만한 政策으로는 국민학교의 義務教育化,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1974년의 고등학교 平準化 施策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든 청소년에게 中等教育을」(secondary education for all)이라는 平等主義 理念을 실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2년 현재 국민학교 졸업자의 97.4%가 中學校에, 중학교 졸업자의 85.1%가 高等學校에 進學하고 있다. 한편 동일연령층의 中學校 就學率이 95.3%, 高等學校 就學率이 74.7%로 나타

나 中等教育은 이미 先進國 水準에 못지 않은 普遍化 段階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中等교육의 보편화는 자연히 高等教育에의 높은 期待와 강한 欲求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이른바 「자리」보다는 이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 大學 入學은 문자 그대로 過熱競爭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大學 門 밖에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再修生群을 형성시켰고, 이 待期性 集團은 高等教育의 門戶를 보다 넓게 開放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社會的 勢力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過程속에서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은 80年代에 접어들면서 하나의 새로운 轉換期를 맞은 셈이다. 7.30초치 이후에 사실상 大學의 門은 크게 넓어졌기 때문이다. 1980年度에 46.7%였던 고등학교 졸업자의 大學進學率이 1981年度에는 무려 63.9%로 급격히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1979년에 13.1%, 1980년에 16%였던 동일 연령층의 大學就學率이 1982년에는 무려 24.3%

로 크게 늘어나 이러한 趨勢로 나아간다면 2,000년에는 大學就學率이 4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Martin Trow의 高等教育 發展段階의 理念型的 分類에 따르면, 우리의 고등교육은 엘리트교육 단계에서 大衆教育(mass education) 단계로 이미 進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엘리트高等教育과 大衆高等教育 段階를 概念的으로 구별하는 分水嶺을 高等教育人口가 동일연령층의 15%를 넘는 線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은 1970년에 이미 현재 우리와 거의 같은 水準인 24%의 고등교육 취학률을 보였으며 1981년에 37.4%까지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70年代 후반부터 高原狀態를 유지하고 있다. 美國은 1970년에 이미 46.5%의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을 보여 普遍化 段階에 들어갔다. 프랑스가 26.4% (1980년), 서독이 19.4% (1979년), 영국이 22.1% (1977년)의 高等教育 就學率을 나타내어 主要先進國들의 高等教育은 오래전부터 大衆化 段階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II. 大衆化 段階의 일반적 特徵

高等教育人口의 양적 팽창에 따른 大衆化 過程은 불가피하게 高等教育體制 全般에 걸쳐 概念的, 構造的 變化를 동시에 요구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발전단계인 엘리트→大衆化→普遍化 段階는 理念型的 區分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나누어지지만 현상적으로는 엘리트와 보편화를 兩極으로 하는 하나의 連續線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을 가지고 여기서는 高等教育의 大衆化 段階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特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大衆化 段階에서는 高等教育에 대한 傳統의 概念과 形態가 크게 바뀌게 된다. 高等教育의 機會가 신분적으로 또는 才能面에서 일부 계층에만 제한되어서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特權으로 인정되던 것이, 어떤 公式的인 資格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단순한 權利로 바뀌어지게 된다. 적령인구의 50%를 넘는 普遍化 段階에 접어들면 고등교육은 이제 權利가 아니라 누구나 教育을 받아야 하는 義

務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둘째, 高等教育機會의 擴大로 大學生의 概念도 달라지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학생은 18~21세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大衆化 段階에서는 適齡을 초월한(age-free)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非傳統的 學生(non-traditional student) 또는 새로운 學生(new student)이라는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大學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들어가야 할 必要性이 弱화되던 時期를 초월해서(time-free) 아무때나 大學이라는 「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

셋째, 高等教育의 機能이 달라지게 된다. 엘리트고등교육에서는 정부나 전문직종에서 일할 소수 정예를 대상으로 주로 支配階級の 品性과 資質을 강조하는데 반해서, 大衆教育에서는 社會各分野에서 봉사할 보다 넓은 범위의 엘리트를 양성하며 인격도야보다는 專門的인 技術의 습득에 더 많은 강조를 하게 된다. 즉, 普遍化의 단계에 들어서면 社會的, 技術工學的 變化가 극심한 高度産業社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을 準備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넷째, 高等教育 體制內에도 變化가 오게 된다. 엘리트체제는 고도로 同質的이며 체제내의 구성요소들도 거의 유사하다. 또한 大學으로서의 매우 높은 學事基準을 가진다. 학생수도 2~3천명 정도의 비교적 작은 規模이다. 그러나 大衆教育 體制는 다양한 기준을 가진 綜合大學의 형태를 지니며 학생수도 3~4만명 정도의 대규모를 유지한다.

다섯째, 學問的 水準도 發展段階에 따라 差異가 있게 된다. 엘리트고등교육에서는 業績主義에 더 잡아 매우 높은 學問的 水準을 유지하는 데 반해서 大衆高等教育에 있어서는 大學마다 그 水準이 각양각색이다.

여섯째, 學生選拔에 있어서도 段階別로 차이가 있다. 엘리트체제 아래서는 中等學校의 成績이나 특정한 入學試驗에 의해서 측정된 점수를 選拔基準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대중교육체제에서는 機會가 제한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업적기준에 의존하지만, 교육의 機會均等 理念을 실현

하기 위해 社會·經濟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補償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入學을 허용하기 위해 現場實務經驗 등 非學問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보편화 단계에서는 最小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入學의 機會를 허용한다.

Ⅲ. 大衆化에 따른 課題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高等教育就學率은 1982년 현재 24.3%를 나타내어 이미 大衆教育段階에 進入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직도 大學進學 希望者의 47%(1982년)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며 대학의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潜在性 大學人口까지를 포함하면 사실상 그 수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다. 學生數 推定에 관한 한 非公式 統計資料에 의하면, 1996년에 高等教育 就學率이 50%에 접근하게 되어 앞으로 10년이 조금 지나면 우리 나라의 高等教育도 普遍化 段階에 접어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平生教育이 國家政策的 次元에서 강조를 받고, 이것이 하나의 體制로서 正規教育和 接木될 때 高等教育水準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繼續教育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高等教育의 需要를 증대시킴은 물론이고 體制內의 變化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高等教育이 大衆化 段階에 접어들면, 여기에 참여하는 對象들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그들의 特性이나 社會·經濟的 背景에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高等教育 人口의 多樣化·異質化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高等教育의 機能, 教育方法, 學生選拔, 迎營體系 등에 많은 變化를 유발시킬 것이며 동시에 彈力的 適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高等教育體制가 현재의 剛性과 硬直性을 탈피하여 보다 柔軟하고 開放적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해야 한다.

1. 高等教育機會의 실질적 擴充

넓어지고 있는 高等教育機會가 地域間, 階層間, 男女間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

려가 있어야 한다. 高等教育 취학률이 2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 아래서 총량적인 수치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機會均等を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주지하듯이 대부분의 高等教育機關이 큰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한 個人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高等教育機會에 용이하게 근접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個人이 살고 있는 地域的인 位置가 배움의 기회를 방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地域間的 균형 있는 社會·文化發展을 기하고 地域發展의 센터로서 社會奉仕機能을 다하기 위해서는 地方에 각종 高等教育기관을 균형 있게 분포시켜 육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職場에 얽매어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에게도 空間的 障礙를 극복하고(space-free), 公평하게 高等教育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와 遠隔學習(distance learning)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로 몰려드는 대학인구를 地方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地方 大學 育成을 위한 財政支援을 확대하고 있으며, 泰國는 學生流出이 심한 지역내에서는 入學條件을 완화하기도 한다. 미국과 카나다는 地域社會大學과 大學公開講座를 운영하고 있다.

1982년 현재 우리 나라 放送通信大學은 9個學科에 30,000名의 학생규모를 가진 수업년간 5년의 學士課程大學으로서, 학사과정 완성년도인 1984년에는 총 인원이 15만명이 넘는 대규모 대학이 될 것이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英國의 開放大學(Open University)에 비하면, 규모면에서는(1979년에 약 6만명의 등록생) 우리의 방송통신대학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學士學位課程 외에도 繼續教育의 하나로 科目履修制, 大學院 課程, 短期實用課程 등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어 수혜자의 學問的, 職業的, 敎養的 欲求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高等教育의 機會가 家庭의 所得額에 따라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상 大學進學에 필요한 막대한 經濟的 負擔은 能力은 있으면서도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不利한 條件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반 장학금, 대

여 장학금, 학자금 용자 등을 확대함은 물론이고 work study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이들의 경제적 결핍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장학금도 經濟적으로 더 필요하고 긴박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男女間에도 高等教育機會의 近接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高等教育人口 중 女學生의 比率은 25%선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産業의 高度化와 女權의 伸張으로 女性의 社會參與가 현저하게 높아질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教育的 對備가 있어야 하겠다. 여성 고등교육기관의 증설을 유도하고, 특정 학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女性 入學人員을 할당하는 조치(affirmative action)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選拔方式의 多元化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學生選拔方式을 多元化하여 平等主義의 理念(egalitarianism)과 秀越性(excellence)의 原理를 동시에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選拔方式의 多元化는 平生教育의 차원에서조차 계급토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進學하지 않으면 영원히 대학진학의 機會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온 社會的 通念도 불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언제든지(time-free)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성 있는 교육체제로 그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大學進學熱이 과열되고 再修生이 누적되는 것은 教育體制의 硬直性 때문에 한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급박함」에도 그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취업을 했다가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대학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制度가 열려져 있다면, 過熱의 정도는 훨씬 냉각될 수 있을 것이고 고질적인 學歷間의 差別意識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成人이나 就業者에 대한 高等教育機會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入學節次의 다원화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25/4制는 25세 이상으로 4년 이상의 實務經驗이 있는 사람에게 大學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제도로 정규 입학시험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英語知識이 요구될 따름이다. 지난 1971년에 문을 연 英國의 開放大學도 전통적인 대학과는 달리, 입학에 대한 中等學校 卒業狀을 요구하지 않으며, 21세 이상의 成人으로 코스에 따른 비교적 싼 등록금을 낼 수 있다면 누구나 無試驗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美國에는 州마다 입학기준과 형태가 다른 다양한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일부 大學에서 시행하고 있는 無試驗入學制에서는 아직도 中等學校 卒業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放送通信大學의 入學은 서류전형으로 高等學校在學時의 석차에 의하여 선발하며 편입생은 前籍大學의 平均評點에 의하여 지역별 지원자와 協力學校의 出席授業 收容能力 등을 감안하여 선발하고 있다. 한편 1982년에 문을 연 開放大學의 전문대학과정은 高等學校 이상의 學歷과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를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學士課程은 전문대 또는 대학 2년 수료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를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開放大學은 放送通信教育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工業系로 서울에 1個校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 근접하는 데 地域的 制約點이 많은 편이다.

3. 非傳統的 高等教育機關에 대한 새로운 認識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需要增大와 多樣한 要求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高等教育體制에 여러 가지 形態의 變化를 수반하게 된다. 既存 教育體制의 制반 규정을 바꾸고 새로운 教授方法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類型의 機關을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새로운 方法이나 機關은 기존체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기존체제와는 성격이 다른 「非傳統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비전통적 교육체제와 전통적 교육체제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결합·운영되어진다. 첫째는 英國의 소위 二重體制(binary system)와 같이 이 兩者가 분리된 實體로서 존재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西獨의 Gesamthochschule와 같이 하나

의 전체로서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들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통합적이면서 다원화된 체제를 구안하는 경우이다. 세계는 비전통적 기관이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일반적으로 비전통적 교육기관은 기존의 전통적 교육기관에 비해 社會로부터 「별 볼일 없는」(less noble) 기관으로 認識되기 쉽다. 방송통신대학이나 개방대학의 졸업생을 전통적인 대학의 졸업생과 差別을 두는 社會的 認識이 없어져야 한다. 就業時나 직장내에서의 昇進에서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해 주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과 그와 같은 풍토의 정착이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平生教育의 基盤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는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IV. 맺는 말

우리의 高等教育은 Martin Trow의 기준대로 하면 1980년을 起點으로 하여 大衆化 段階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高等教育人口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90年代 후반에 가면 高等教育의 普遍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産業社會로부터의 高級人力에 대한 需要增大와 高等教育을 받고자 하는 個人的 欲求가 높아짐에 따라 高等教育의 門戶는 어쩔 수 없이 더 넓게 열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高等教育의 機會擴大를 위해서는 既存 大學의 경직성을 柔軟化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開放大學과 같은 非傳統的 教育機關의 擴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령, 공간, 시기를 초월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이 연구·제공되어야 한다. 平生教育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高等教育體制의 開放化·柔軟化·彈力化는 필수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課題라 하겠다. 또한 高等教育에 대한 傳統的인 概念도 時代的 흐름과 요구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公式的인 學校教育의 時限性을 벗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學習社會에로의 指向은 諸 先進國의 공통된 모습이다. 學生人口의 多樣化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규 대학내에서 定時制, 야간제, 비학점 과목등록제(non-credit course)를 채택하는 등의 체제변화는 물론이고 成人學習者를 위한 成人教育이나 平生教育이 제공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大衆高等教育은 機會擴大에 따라 자칫 하락되기 쉬운 高等教育의 質을 어떻게 유지보장할 것이냐의 고민을 안고 있다. 學生人口의 增加와 變化로부터 나타나는 多樣化에 대한 壓力은 기존의 전통적 대학의 학문적 수준, 가치 그리고 본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나친 過剩教育(overeducation)을 통해 다량으로 배출된 人力이 勞動市場의 需給均衡을 깨뜨리게 되면 Dore가 지적한데르 學位病(diploma disease) 現象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각종 職業의 教育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高等教育機會의 擴大 및 平等理念의 具現과 教育의 質 保障은 사실상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持續的인 政策的 關心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